



## 위대한 수령님들의 봄원을 찬란한 현실로 꽂피우시려

위대한 시대의 날과 같이 흐른다. 세인을 경애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디제단으로 이룩되고 인민사랑의 대기념비들이 우후죽순처럼 속구쳐오르는 우리 조국의 날과 달들에서 인민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청감하는 것인가?

열화같은 정파 사랑으로 인민을 품어안고 친환경 미래에 향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고무해주시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욱 분발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구상과 봄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주체혁명의 새로운 100년대를 승리와 영광으로 대대로 빛내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봄원을 한치의 드로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천지의 관찰해나가는것,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주제 101(2012)년 1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장군님을 더 잘 보시고 장군님의 구상과 봄원을 이 망우에 꽂피우겠는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우리는 장군님의 면전에서 다른 명세를 잊지 말고 장군님께서 구상하고 봄원화된것들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하야 합니다.

한없이 고결한 도덕의리심과 승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절제 인민을

수령의 유훈관찰전으로 힘있게 불러 입으시길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평도파과 역사의 생눈길을 헤쳐온 뜻 및을 추억이 우리를 부른다.

지금으로부터 6년전 4월 원공장을 일둔 인민국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 민 국 장은 어버이장군님께서 10여년전부터 구상해오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특별히 관심하시던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국장이 흥물히 일떠서 유통으로서 우리 일민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흥물한 국장을 안겨 주시고 미움으로 장군님을 모시고 왔던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되었다고 조용히 되어시었다.

계속하시며 그이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 대개기념직 전축봉이 국장을 보시였으면 대단히 철학해 하시었을것이라고 짐작하였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미더미에 뜨겁게 어려있는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들었다.

불철주야로 이어가시는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나날 그 어터를 찾으시여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찰을 첫자리에 놓으신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여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학을 풍성한 사업이라고, 이 공정에서 생활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가공품을 안겨주시기 위해 미움쓰시면 장군님의 봄원을 물벼슬수 있다고 절실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미당으로 나오시여서도 풍성한 관리를 물벼슬보시며 자신께서는 대동봉과 함께 풍성한 가공공장의 종업원들이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여도 그것이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관찰하는 성스러운 행정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시의 사상관찰전과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며 믿는다는 크나큰 기대를 표시하시였다.

평양에 기공장을 세겨진 이야기는 또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것인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그

비움의 세계를 어찌 다 해아릴수 있으랴.

하나의 감동깊은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적십다.

몇해전 6월 대동강파일종합가공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 앙 흥 경 면 백에 모셔진 어버이장군님의 영상작업실에서 이

육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활짝 피어난 사과꽃바다를 배경으로 한 황 천 오시는 원래 한 장군님의 자에로운 영상을 경건히

유성으로 대동강파일종합가공공장에 장군님을 모시고 왔던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되었다고 조용히 되어시었다.

동행한 일군들도 모두 숭엄한 각정에 휩싸였다.

그날 우리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으시고 풍랑의 여러꽃을 봄이오시며 키움을 주시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차기 가공품 생산을 늘리는 것은 장군님의 애국, 애민의 평도역작을 및내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 공정에서 생활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가공품을 안겨주시기 위해 미움쓰시면 장군님의 봄원을 물벼슬수 있다고 절실히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열미나 크나큰로고를 바치시었는지라는 물질로 묻으셨다. 우리 일군들이 장군님의 그 료고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일군들은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표고를 생각하여서라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두통에 적극 맡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렇게 흘러온 우리 조국의 날과 탈일이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찰을 위한 투정을

주선으로, 생명영에 풀어쥐고 철저히 관찰해나가도록 함으로써 부강연

행하는 조국과 더불어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사적은 계속 풀기자제

호록도록 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물벼슬

관찰하는 것을 숭고한 도덕의리로

기지며 블면불유의 표고와 심혈을

기울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충정의 세계를.

길어온 영광의 행로를 머듭여보

며, 한층한 레일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과 블레우며 우리는 소리높이 웨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서 그토록 담원하신 인민의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

본사기자 김일권

기지여 주체조선의 위용은 만방에 떨쳐지고 이 땅에는 행복님원 원민의 웃음소리가 더욱 높아가는것이 아니던가.

지난 10월 개관을 앞둔 산지연관 천연암 극장을 현지지도하신 그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정의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찰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다음해 10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흥물하게 개편된 경상대기공장은 또다시 찾으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평양기공장에 왔다가 메기생산에 실험을 기울여 신용원공장을 하나 잘 건설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장군님의

이야기에서는 평양기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려놓으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신다면 간접해 진다고, 장군님께서 계실 때 이런 흥물한 풍랑을 한번도 보여드리지 못한것이 정말 가슴에 뭇한다고 갈피신 유통으로 말끔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열미나 크나큰로고를 바치시었는지라는 물질로 묻으셨다. 우리 일군들이 장군님의 그 료고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일군들은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표고를 생각하여서라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두통에 적극 맡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험지히 관찰하는 것을 숭고한 도덕의리로 기지며 블면불유의 표고와 심혈을

기울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충정의 세계를.

길어온 영광의 행로를 머듭여보

며, 한층한 레일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과 블레우며 우리는 소리높이 웨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서 그토록 담원하신 인민의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

본사기자 김일권

## 혁명의 만년재보

### 건창숙영지

건창숙영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28(1939)년 5월 19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출발하고 무산지구에로 진군하시던 길에 속행한 것이다.

건창은 한때고 이곳으로 불이 흐르는 기간보다 말라있을 때가 더 오래되었는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건창숙영지는 땅강도 산지연군에 있다. 대원들의 철막들을 일일이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찰조를 파견하여 리명수에 대한 적성을 보려 하시고 저녁 8시경에 킥명수탁치기로 가시었다.

이곳 험난한 통로에서 정찰조를 끝내고 돌아온 수령님께서는 일제세우고보니 장군님생각이 간절하다고, 장군님께서 계실 때 이런 흥물한 풍랑을 한번도 보여드리지 못한것이 정말 가슴에 뭇한라고 갈피신 유통으로 말끔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런 기념비적성조를 을 일제세우고보니 장군님생각이 간절하다고, 장군님께서 계실 때 이런 흥물한 풍랑을 한번도 보여드리지 못한것이 정말 가슴에 뭇한라고 갈피신 유통으로 말끔하시였다.

이어 이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이어 이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려움을 암으시고 우리 장군님의 흥물조 풍경과 갖은 풍물과 술밥전에 대한 흥물에 놀아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드겁게 말끔하시였다.



## 시 룩 음

## 백 두 락 원 의 해 돌 이

## 고향집뜨락에 솟은 락원

문 용 월

철 철— 눈꽃을 뿐여  
어머니택 두산도 축복하는가  
유서깊은 고향집 추녀이래  
즐비하게 나래풀 칠립속의 이  
거리

벌새 새집들 이품을 꾸며  
행복의 주인들을 부르는  
온갖 창문들과 멋진 레드풀  
이제 문제만 달면

북반은 생활의 음향 노래처럼 읊  
리리

봄이면  
뿐긴 사슬의 무리 내리는 산자락에  
울긋불긋 추녀를 펼친 꽃지봉들  
숲과 자연과 문명이  
한빛으로 물들어 가는 산간문화도  
시여

그 자체 황홀하고 눈이 부서 멀천  
지천가  
창가마다 어리는  
네인들의 웃음꽃린 그 얼굴이 딸  
이요

아이들의 농금불이 떨어이라  
인민의 꿈이 꽂혀 리상향  
인민의 웃음이 넘쳐 멀천지

백두의 벌들도 내리고내려  
평생성전설을 들려 주는 이 거리

## 불 라 는

고향집들상가에 그려지면 그 아름  
다운 꿈이  
새끼를 밟혀 태오르면 그 등잔불이  
황홀한 멀천지에 어렸구나

세월의 눈보라를 헤여 잡은  
그 귀를 걸지 봉밀에  
끌끌이 잇당은 행 복의 추녀와 추  
녀풀

고향집의 떡과 정이 넘쳐 흘러  
마스한 봄의 락원

이름다와 말  
태양의 빛밭도 계일면제 흘러드는

순간 고요가 깃드는가

아, 칫는  
안검모를 벗어들고  
정장반박 두손들에 정히 받아드는  
백두고향의

우리 장군님 한령생 맞으신 눈  
뜨거움에 젖는 눈길들이

삼가 우러르는 허황령 저 언덕  
한데도 쓰아 및남은 행 복의 추녀

세상은 눈비미며 보게 되려니

아, 고향집 뜨락에 솟은 락원

어머니택 두산도 기쁨에 겨워  
백설의 웃음발을 산공에 날린다

눈우사사 나의 살지연이야  
아직도 꽂나지 않으신듯

아, 우리 어버이 애정복사락엔  
세월의 친들이 그냥 내려앉누나

소리없이 내리는 눈발속에

압제의 아둠 불태우던 백두산의  
그 뮤길  
압살의 헛된 망상 산산이 불사르며  
승리의 희성을 더 높이 끌어치며  
리명수, 조태, 증홍…  
황홀한 백두산역에

세월의 눈보라를 헤여 잡은  
그 귀를 걸지 봉밀에  
끌끌이 잇당은 행 복의 추녀와 추  
녀풀

고향집의 떡과 정이 넘쳐 흘러  
마스한 봄의 락원

이름다와 말  
태양의 빛밭도 계일면제 흘러드는

순간 고요가 깃드는가

아, 칫는  
안검모를 벗어들고  
정장반박 두손들에 정히 받아드는  
백두고향의

우리 장군님 한령생 맞으신 눈  
뜨거움에 젖는 눈길들이

삼가 우러르는 허황령 저 언덕  
한데도 쓰아 및남은 행 복의 추녀

세상은 눈비미며 보게 되려니

아, 고향집 뜨락에 솟은 락원

어머니택 두산도 기쁨에 겨워  
백설의 웃음발을 산공에 날린다

눈우사사 나의 살지연이야  
아직도 꽂나지 않으신듯

아, 우리 어버이 애정복사락엔  
세월의 친들이 그냥 내려앉누나

소리없이 내리는 눈발속에

황화산으로 솟구쳐오른다  
오, 빨찌산 옛 절구에 솟아오르는  
락원의 도시와 함께  
자리지라는 신념의 대오  
실악의 현봉들을 넘어넘어 행군해  
간다  
원풍의 그날, 승리의 그날에로!

침파 집 건축물을  
짚묘한 조각풀인가  
아시아와 유럽  
유명짜한 산간도시들도 무색께 할  
황홀한 빛을 내뿜는

문봉의 미상도시 세워가는 저 모습을  
백제의 무작장식을 더듬을 때는  
공에 사요

새갈고을 부서 타일을 만들어내는  
건재기사

풀과 호수와 숲이 하나로 어우러진  
산책길을 짠아갈 때면 생태학자라

과학과 불명의 빛을 뿐이며  
솟아난 일민의 희망과

행복의 주인들을 부르시면 그 음성

돌리시는 인민의 절 뜨락에 선  
사랑의 개념사진 다 달기시면서도  
죽어 길이 찾으신 백두산길영의

고향집에선  
인민들이 다 잘 살 때 와 짹قت다시며  
사진 한장 남기지 않으신 우리  
어버이

말해다오 흰눈야  
이 나라 어느 거리 그 어느 마을도  
아버지의 업과 정으로  
행복의 아래 목 마스의 덩화주신  
장군님의 집이 아니었던가

아버지의 그 넓은 꽃민 미상거리에  
그리움의 세계를 펼치며  
내고내고나리는 흰 눈

돌격대원들의 가슴에 불처럼 뜨거운  
아, 삼지연의 흰눈야

남마다 흥신이네  
온 나라가 백두연으로 절쳐졌나니  
삼지연지역을 풀기 좋기 모아참고  
백두의 후손들을 풀어안은

봉나루우듬지에 서리꽃이 날리네  
어제는 제대 군인 총 각를 이 오  
더니  
오늘은 평양의 세쌍봉이 치녀들이  
온다고  
이집저집 창문들이 열리네  
삼지연식들이 나날이 늘어난다고  
온 마을이 얼싸안고 살네

어제는 풀대원  
백두산기술 줍이급이  
언제도 쌓고 새 거리도 세우더니  
오늘은 백천지의 어엿한 주인이  
되었구나

이집저집 꽃풀한 배필도 맞아  
궁궐같은 새 집에 첫 살림을 펼치  
려니

새집들이 경사에 새 식출을 맞는  
기쁨

별천지가 솟더니 둑이 온다고 꽃  
이 핀다하고  
깍-깍- 아침까지 우짖네

울리오누나  
산에 삶을 지나 천고밀밭 누  
비며  
우리 원수님 딸리시면  
세백현자의 기적소리  
부석들 하나 한줄기 바람결에도  
수령님들의 체취 후마운 땅  
세백안개 감도는 삼지연못 가를  
저니시면  
그 역사의 세벽길이  
세기를 넘어 이어지는가  
차창가득 비껴올리라  
신기루마냥 솟구쳐오른 기적의  
도시

삼지연군설계도를 마주하시고  
한발을 저세우신 그 불빛들이  
해살로 눈부신 아침이여

해둔이에 불들어 더더욱 절경인  
도시의 용진한 자태  
바로 이것이 꿈에서도 그려보던  
인민의 미상향이하고  
밀림 가득 기쁨을 더 치 시는  
그 모습

삼복의 폭양속에  
쏟아지는 눈발속에  
오고오고 또 오신 그 자유우에  
솟아오른 백현지의 대문을 지나  
분명의 대용로는 뛰워져 뛰어갔  
나니

나래치 봄 천길 파 기적의 해와  
달이여  
감자산 호북한 중흥동관의 만풍  
가를

온 나라 밀과 밀 환풀까지 펼쳐이  
게 풀려가며  
풀령도시 황홀한 그 눈부심으로  
온 나라 군과 군을 무지개처럼  
휘감으며

인민행복도우에  
만복의 세월을 이끌고  
눈부신 미상향을 펼치며  
달리는 협차

찬란한 데양!

오, 원수님의 손길에 밟들며  
황홀하게 일어서는 락원에  
해 및은 눈부시다  
수령님들의 넘친 꽂쳐나는 이  
강간

백두의 기슭에서 이 땅 한풀까지  
별천지의 아침해살이 찬연히 머져  
간다

학교 기숙사에 놀라우면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으로  
나를 데려온다. 그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그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진 백두산을 펼쳐온다.  
교원들이 펼쳐



## 세계자주화를 위한 길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

오늘 우리 민족 세계 진보적인 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비범한 사색과 향구, 정역적인 사상과 활동으로 세계혁명파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게 대한 학제적인 경모의 정이 뜨겁게 자리잡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의 기치, 국제적정의의 기치를 높이 드리고 제국주의 반동파의 자주주의적책들을 저지하면서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과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주적이고 공정한 국제판례(제)의 수립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웨남사회의 공화국(당시 웨남민주공화국)을 방문하시였다.

사회주의혁명과 전선에서 세계적 도움을 창조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은 자기 나라에 모시려는 것은 웨남의 호지명주서과 웨남인민의 절절한 소망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47(1958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웨남을 천선방문하시였다. 당시 이 나라의 신분들은 1명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 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그의 혁명활동영락을

소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알고 각계 종업원님들은 거리에 떨쳐 나와 물품과 두 나라 기발을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지명주서과 냄새로 상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웨남방문기간 하노이시교외에 있는 현사람에 화환을 전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군관학교를 비롯한 웨남의 어려운 광활한 지형과 철도, 항공, 육상으로도 무장하고 사회주의 건설투쟁을 풀심방으로 지원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수십 차례나 웨남대표단들을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으며 웨남혁명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였다.

이것은 호지명주서과 뜻으신 각별한 동지적 우의를 귀중히 여기시고 웨남과의 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와 협력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우리

수령님께서 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참다운 국제주의의 산본이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은 조선과 웨남사회의 철도협조관계 발전과 세계자주화와 불멸의 공勋을 하신 세계혁명의 탄생한 수령, 정치원로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국제적권위와 불멸의 대외활동적용을 응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세계 여러 나라와의 선린 우호, 협동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기여로써 주제 47(1958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웨남을 천선방문하시였다. 당시 이 나라의 신분들은 1명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 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그의 혁명활동영락을

위업수행에 불멸의 공勋을 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모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웨남방문은 조선과 웨남사이의 철도협조관계 발전을 주종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되었다.

조선과 웨남사이의 철도협조관계는 그 후 계속 발전되어 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때에도 웨남인민의 반미 구국항쟁과 사회주의건설투쟁을 풀심방으로 지원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수십 차례나 웨남대표단들을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으며 웨남혁명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였다.

이것은 호지명주서과 뜻으신 각별한 동지적 우의를 귀중히 여기시고 웨남과의 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와 협력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우리

수령님께서 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참다운 국제주의의 산본이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은 조선과 웨남사회의 철도협조관계 발전과 세계자주화와 불멸의 공勋을 하신 세계혁명의 탄생한 수령, 정치원로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국제적권위와 불멸의 대외활동적용을 응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세계 여러 나라와의 선린 우호, 협동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기여로써 주제 47(1958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웨남을 천선방문하시였다. 당시 이 나라의 신분들은 1명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 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그의 혁명활동영락을

특 마잉 웨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뜻깊은 상봉을 하시였다.

이것은 오랜 역사와 가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역사적인 힘으로 되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민은 웨남인민이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으며

호지명주서의 위업을 밟아들어 앞으로도 무장하고 영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푸정에서 좋은 결실